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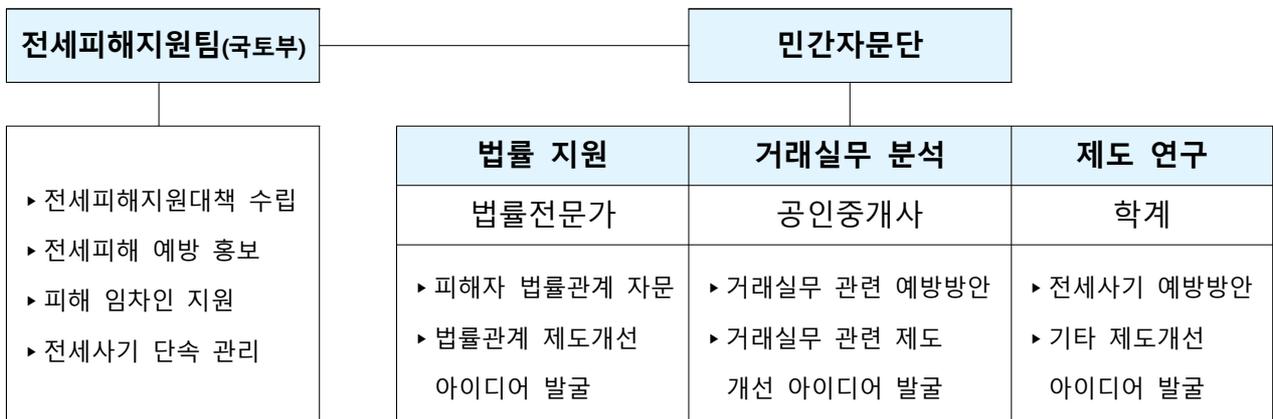
배포 일시	2023. 1. 6.(금)		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전세피해지원팀	책임자	팀 장 정덕기 (044-201-3552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신 (044-201-4423)
			사무관 문수빈 (044-201-44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·관이 머리를 맞댄다

- 법률·공인중개사·학계 등 전문가 13인 위촉
-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의 싱크탱크로 활용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6일(금)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, 공인중개사,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.
-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, 실무거래반,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하였으며, 전세계약 관련 법률·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.

### 【 전세피해지원 민간자문단 조직체계 및 역할 】



-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·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아울러,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오늘 키포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,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 정책위원회·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.
-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,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.
-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“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,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”고 밝혔다.

